

## “작은 것이 아름답다”

대형서점들이 줄이어 문을 연다. 교보에 뒤이어 오는 15일에는 영풍문고가 문을 연다. 그렇게 되면 종로주변에는 1천여 평이 넘는 대형서점들이 4개나 된다. 사람들은 종로가 서점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된다고 좋아한다. 우리의 종로가 일본의 간다(神田)나 프랑스의 센 강변처럼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굳혀지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점의 대형화 집중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다만 ‘세계최대’의 서점을 가졌고 얼마 안있으면 그것에는 못미쳐도 또한나의 ‘굉장히’ 큰 서점을 가진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듣고 있지 못할 뿐이다. 잠깐 지금의 들뜬 열기를 가라앉히고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그 말에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요지는 대략 이렇다. 서울의 중심부에 대형서점들이 밀집해 버리면 번두리의 작은 서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는 것과, 덩치만 클 뿐 각 코너가 ‘세계최대’에 걸맞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곳에 유사업종이 군집을 이루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마치 경쟁을 하듯 대형화에만 신경을 쓰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서점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서점들이 아닐까.

사실, 전문출판사나 특정분야 연구자들은 대형서점의 해당코너가 자못 못마땅한 듯하다. 분류가 잘못돼 있는가 하면, 없는 책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노파심에서지만 내용면에서 거의 차별성이 없는 서점, 덩치만 컸지 필요한 책을 찾을 수 없는 서점들로 군집을 이룬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참의미의 ‘서점거리’와 거리가 있지 않나 싶다.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맞지만 일본의 간다거리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점들과 헌책 새책 서점들로 밀집해 있다 한다. 그런데 그곳이 유명한 이유는 이같은 ‘외양’이 아니라 구하지 못할 책이 없다는 ‘내실’ 때문이라 한다. 종로에는 ‘이곳’에 없는 전문도서는 ‘저곳’에도 ‘그곳’에도 없다. 광화문에 있는 사진전문 서점 ‘포도박스’가 교보의 개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을 일깨운다. 주변의 군소서점들도 지레 겁먹고 문부터 닫고 볼 것이 아니라 대형서점의 허한 곳에 승부수를 던지는 치열한 기업정신이 아쉽다.

— 정혜옥 기자

## 재미있는 책이야기

193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이며 소설가였던 랭스튼 휴즈가 발표했던 소설 「Not Without Laughter」는 작가의 풍부한 인생경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특히 당시의 흑인들 모습을 생생히 전해준다. 그의 청춘기를 결산하는 자전적 소설로 읽히는 이 작품의 초점은 흑인들의 심리와 사상에 맞춰져 있다. 즉 이 책에서의 ‘웃음’은 인종적 억압에 대한 반응이며, 복잡한 방어적 웃음은 흑인에겐 구원이기도 하다는 뜻인데, 한 흑인소년의 어릴적 책읽기에 대한 구절이 있어 여기 최근에 출간된 번역본 「아직 웃음은 있다」(정종국 옮김, 박우사)의 일부를 인용 소개한다.

턱이 점점 배로 부어오르고 ‘유행성 이하 선염’이라고 쓴 빨간 표지가 집앞에 붙여지고, 3주간은 외출 금지였다. 학습을 위한 필독서 이외의 책을 이 소년이 읽기 시작한 것은 이 기간 중이었다.

헤이저 할머니의 집에는 성서와 그가 크리스마스 때 받은 동화가 몇 권 있을 뿐 어떠한 책도 없었으나, 템피의 집에는 거실을 근사하게 꾸미기 위해 먼지투성이 책이 가득 꽂힌 책꽂이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빨간 장식의 「영국고전전집」, 12권짜리 「세계지식백과사전」, 묘한 그림이 가득 있는 「가정의학보전」, 게다가 몇권의 현대소설 - 「로자리」, 「천국의 작은 목자여,

오라」(존 폭스 작, 1903년), 하롤드 벨 라이트(1872~1944. 미국의 대중 소설가)의 최근작이 몇권, 거기에 템피가 좋아하는 작가인 지인스트라트 포오터(1863~1924. 미국의 소녀 소설작가)의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흑인 작가의 것으로는 체스나트(1858~1932)의 「삼나무 숲속의 집」과 포올 로우렌스 단바(1872~1906)의 「전 시집」(1913년 발행)이 있었다.

이 단바를, 템피는 그의 명성으로 하여 그 시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너무 방언을 많이 썼고, 흑인의 하층계급의 일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바야 그라트 부인이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템피는 「하아퍼즈 매거진」(1850년 창간. 처음엔 문예지로써 출발했으나 1900년경부터 정치, 사회적인 논설을 많이 실게 되었다)을 예약 구독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재봉실 벽장에는 「위기」(1910년, 듀 보아에 의해 창간된 흑인 사회운동의 기관지)라고 하는 얇다란 흑인의 월간지가 쌓여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창간호부터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선디는 이 잡지에 대해서는 전부 터 들은 일이 있었으나 실물은 한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한번 꺼내어 유명한 흑인의 사진을 보

기도 하고 그 전국적인 활동이나, 남부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의 무도함에 대한 기사를 읽기도 했다.

어느 달치에도 흑인의 희망이 어쩔 수 없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라는 가, 흑인종이 가진 숨은 아름다움에 대해 감동적인 미문으로 이룬 사실이 실려 있었다. 그것을 쓴 사람은 듀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중략)

아무튼 이 듀 보아라는 사람은 무엇을 쓸 수가 있다! 아아, 이 사람이 린치에 대해서 쓴 것을 읽으면 온몸이 뜨거워진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개월 후에 선디는 도서관에서 「노예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책을 읽고 헤이저 할머니는 역시 틀리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가졌는데, 부우커 T 와싱턴의 이름을 템피에게 말하는 것은 그만두고 말았다.

그해 겨울, 이모가 프렌티스씨라고 하는, 선물 카드 판매 겸 인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가게에 일자리를 얻어주어 그의 독서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그 가게에서 그는 가게 안의 청소와 배달계를 맡았다.

이 가게에는 책꽂이가 하나 있고 새 소설책이나, 신진시인 - 선드버그, 린제이, 마스터어즈 - 들의 시집이 몇권 꽂혀 있었다. 이 책을 그 당시 스탠튼의 여자 청년회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을의 나이

많은 백인부인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경천동지의 일이었다. 선디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고우치대학의 학생이었던 프렌티스씨의 딸이 언제나 가게를 지키며 소년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했고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쓰여있는지 등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고용한 흑인소년으로서 독서에 관심을 보인 소년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장려하기 위해 그녀는 곧잘 가게의 장식품이었던 책을 그에게 빌려주었고, 밤에는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갖다놓도록 해주었다. 이리하여 템피에게 몸을 붙이고 산 최초의 1년간 선디는 열네살의 소년으로서의 너무 어린 같은 소설 따위에 탐닉하여 지내게 되었다. (중략)

고등학교에서 선디는 이모의 권유를 좇아 고전과목을 택했는데, 그 가운데는 라틴어 고대역사, 영어가 있고, 꽤 많이 책을 읽어야 했다. 영어선생은 마사 프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몸집이 큰 남자 같은 느낌의 부인이었다.

예전에 유럽에서 살았었다고 하면서 곧잘 영국의 흥륭함을 얘기하거나, 책의 문구를 극적인 어조로 낮고 남성적인 목소리로 읽는 것을 좋아했다. 선디가 셰익스피어의 지도를 받은 것도 이 사람에게서였다. 봄학기에 「베니스의 상인」을 클라스에서 읽었던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09호 / 1992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이너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謙天 崔炳天 金旻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亨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珍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淑淑	李薰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龍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秉鍾	鄭雲暎	鄭晉錫
鄭錫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있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평과 저·역자평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